

동아시아 最古 목탑지 발견

서울 풍납토성서... 백제 불교 도입기 유구로 추정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관련 목탑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풍납토성에서 발견됐다.

한신대 박물관(관장 이남규)은 4월 29일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경당지구에 대한 재발굴조사에서 목탑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유구는 2005년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시굴조사만 마치고 중단됐던 44호 유구, 101호 유구, 206호 유구, 196호 유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206호 유구에서 발견됐다.

206호 유구에서 발견된 유구는 한 변 길이 10여m, 깊이 3m정도의 방형 수혈을 굴착한 후 그 내부를 점토와 사질토로 교대로 준판축하고 다시 그 위에 점성이 적은 사질점토를 성토한 유구다. 그 후 판축 성토한 방형 축기부의 중앙부를 직경 2.5m 정도의 범위로 다시 굴착해 할석을 채워

넣은 구조이다. 이 구조물과 유사한 형태의 유구는 사비기 백제 목탑지 등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축조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관계자는 "추정 목탑 유구는 노출된 토층으로 볼 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속하는 것으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 동진의 스님 마라난타를 초청해 불교를 도입했을 당시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이 유구가 목탑지로 확인될 경우,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 중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관련 목탑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고대의 경우 왕성 안에 사찰이 배치되는 예는 흔히 있는 일이라 풍납토성 내에서 사찰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



목탑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풍납토성.

다"고 진단했다. 백제기의 문화상 연구에 확실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중앙박물관 법보展 개막

한반도 '푸르게 푸르게'

조계종 민주본 '통일나무심기 사업' 추진

한반도의 산림을 함께 가꾸는 사업을 조계종에서 발 벗고 나선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주본)가 통일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한다. 통일나무심기사업은 식량난의 한 원인이 된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통일나무심기사업은 단순한 대북지원을 넘어 남과 북이 함께 통일된 미래의 생을 함께해 가는 데 의미가 있다.

민주본은 겨례하나 등과 함께 '우리겨레 푸른 숲' 단체를 만들어 우선 평양시 상원군에 양묘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잡고 있다.

올 시행될 1차년도 목표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양묘장 건설 및 묘목지원으로 양묘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10ha의 양묘장에서 키워낸 묘목으로 1000ha 면적의 조림수 300~500만 그루가 생산 가능하다.

이어 내년에는 묘목생산과 시범조림을 위한 종자와 자재를 지원하고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묘목을 생산하고 출하하게 된다.

이중 민주본은 시설양묘원실 1개동을 맡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본은 6월 8일 오후 3시 30분 통일나무심기운동선포식 및 민주본 창립 8주년 기념법요식을 열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해)은 4월 28일 황룡사지 출토 사리, <보협인다라니경> 등 '법-소리 없는 가르침'을 주제로 개관 1주년 특별 '법보'전을 개막하고 6월 29일까지 전시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 호계원장 범등 스님,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귀례 한국다문화협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의 역할으로 펼쳐낸 진리의 자취, 법의 향연을 통해 부처님의 깨우침이 사부대중의 가슴속에 전해지길 바란다. 문화를 지키고 민족의 얼을 살리며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포교정책연차회 개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삶의 끝에 선 사람들에게 종교가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불교의 죽음관은 무엇이고 불자들이 제대로 삶을 정리하게 만들려면 불교계에서는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까."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송) 포교연구실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5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8차 포교정책연차회'를 열었다. 이날 연차회의 주제는 '불교의 죽음관과 호스피스'였다.

이날 연차회에서는 '불교의 임종맞이 의식과 그 중요성'에 대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리학과 강동구 겸임교수가 발제,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오진탁 소장(철학과 교수)이 토론을 맡았고, '불교 호스피스 교육과 제도 확립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정토사 관자재회 이사장 능행 스님이 발제를 맡았다. 김강진 기자



2일 현판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금오사상연구소.

금오사상연구소 본격 활동 시동

한국불교연구원서 현판식

한국불교정화사의 주역 금오스님의 학술적 재조명을 위한 금오사상연구소(이사장 월서)가 2일 서울 내자동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지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금오사상연구소 이사장 월서 스님, 부이사장 월탄 스님을 비롯해 진관 스님,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 원담 스님(수국사 주지) 각원 스님(종회의원) 등 금오문도 출가자 20여명이 참석한 현판식에서, 월서 스님은

금오스님의 불교정화이념과 승단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금오사상연구소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탄 스님은 "간화선 중흥 등 중단 안건 중 다수가 일방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금오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밝혀 정법불교를 구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인설립과 학술세미나 개최 등 활동에 나설 금오사상연구소는 오는 9월 금오스님 열반 40주기를 기념한 <금오정화사상>을 출간에 즈음해, 7월중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신라 화엄10찰 청담사 건물터 발견

서울 은평뉴타운 예정지서 명문 기와 발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은평구 진관내동 일대 은평 뉴타운 예정지에서 신라시대 10대 화엄사찰인 청담사 추정 건물터가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2007년 7월부터 SH공사 의뢰로 진관내동 일대 3-A 공구를 정밀 발굴조사했던 한강문화재연구원(원장 신숙정)은 고려시대 대형 건물터에서 '삼각산청담사삼보초(三角山淸潭寺三寶草)'라는 글자가 적

힌 평기와 5점을 발굴했다고 2일 발표했다.

삼각산은 고려시대 전기 이후 주로 사용된 북한산의 명칭이다. 청담사는 신라시대 10대 화엄사찰 중 하나로 최치원은 <법장화상전>에 "해동의 화엄 가르침을 퍼는 곳 열곳이 있으니...한주(漢州) 부아악(負兒岳) 청담사도 있다(海東華嚴大學之所有十山...漢州負兒岳淸潭寺也)"고 적었다. 여기서 부아악은 북한산의 삼

국시대~고려시대 당시 명칭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명문 발견은 그동안 정확한 위치나 존재 시기를 알 수 없었던 청담사의 위치와 존재시기 등을 추정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 "현재 발굴조사 중인 건물터가 일반 사찰터와는 다른 구조여서 청담사 터가 맞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인된 명문은 금석학자와 서체전문가 등에 정확한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방송 18주년 기념식

유인촌 문광부 장관 참석

BBS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4월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 특설홀에서 개국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방송의 최대 현안은 종합미디어그룹 도약과 상

암DMC 진출"이라고 강조한 뒤, "텐플스테이 등 불교의 무한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은 거례를 하나로 묶어주는 부처님 법음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불교방송의 기능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종 중앙종

회의장 자승,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총지종 통리원장 원송 정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한 각 정당 국회의원 50여 명과 언론인, 불자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한편 불교방송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와사회포럼과 공동으로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성우 기자

용성스님 수행법 논의

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

물목 깨달음(頓)과 점차 깨달음(漸) 어느 것이 불교적 깨달음일까? 지난 20여년간 한국불교를 뜨겁게 달궜던 돈오에 대한 논쟁이 "용성 스님의 깨달음이 간화선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는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의 발표로 다시 타오를 전망이다.

보광 스님은 4월 29일 종로 대각사에서 열린 대각사상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백용성 스님의 대각증득과 점검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스님은 "용성의 수행과정은 크게 16세에서 23세까지를 오도수행기(悟道修行期)로, 이후 40세까지를 오후수행기(悟後修行期)로 나뉘며, 4차에 걸쳐 깨달음을 얻었다. ▲꿈의 깨우침으로 출가 ▲다라니 염송으로 입장소멸 후 깨달음 체험 ▲화두참구로 대각증득 ▲경전열람으로 깨달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법 대한 불교 법성종 추

총 정 장허 덕암
총 무 원 장 능허 혜운

교 육 원 장 설허 만원
포 교 원 장 상허 재령

총무원부원장 도원
중앙총회부위원장 설봉 성인

포 교 부 장 보현 조보현
재 무 부 장 옥천 류옥순
총 무 부 장 백봉 성관

원 로 원 장 춘광 법주
중앙총회위원장 일허 혜승

문 화 원 장 락허 혜운
규 정 원 장 조허 혜운

교 육 원 부 원 장 법정
포 교 원 부 원 장 보안 현철

교 육 부 장 일초
문 화 부 장 문순재



총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